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조류인플루엔자 8대 취약대상 방역관리 강화 -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,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현장 관리 지속 -

《 주 요 내 용 》

- ◆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(H5형)이 12건* 검출(10.1일 이후) 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증가
 - 2019.11월 겨울철새 서식 규모는 전월보다 15% 증가한 705천수이며, 대만·베트남·중국 등 주변국은 조류인플루엔자 지속 발생
 - ◆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“8대 취약대상*”을 정하여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소독 지원 등 방역관리 강화
 -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순차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미비점은 지속 보완
 - * ①철새도래지, ②전통시장, ③거래상인, ④식용란선별포장업, ⑤밀집단지, ⑥소규모농가, ⑦고령농가, ⑧가든형식당
 - ◆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주요 전파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축산차량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것이 중요
 - 축산차량은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진입 금지, 우회 통행
 - 사료·분뇨·계란·왕겨 운송 차량은 농장 내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, 부득이하게 출입 시 농장 전용차량 이용, 3단계 소독*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
- * 축산시설 소독→거점소독시설 소독→농장 입구 소독
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)는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고, 우리나라에 도래한 겨울철새도 지난달보다 증가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“8대 취약대상”을 정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.
 - 야생조류에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(H5형)은 특별방역 대책기간 시작된 지난 2019.10.1일 이후 총 12건으로 충남(4건), 충북(2건), 경북(2건), 강원(1건), 경기(1건), 전북(1건), 경남(1건) 등지에서 지속 검출되고 있다.
 - * 정밀검사 결과, 12건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인
 - 또한, 환경부 조사결과(2019.11월), 우리나라로 도래한 겨울철새는 지난달(2019.10월, 611천수) 대비 15% 증가한 705천수로 확인되었고, 대만·중국·러시아 등 주변국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.
 - * 2019.1.1일 이후 대만 86건, 베트남 7건, 중국 4건, 러시아 2건 발생
-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에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“8대 취약대상”을 정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한다.
 - 8대 취약대상은 ①철새도래지(96개소), ②전통시장(가금판매소 329개소), ③거래상인(계류장 239개소), ④식용란선별포장업(93개소), ⑤밀집단지(10개소), ⑥소규모농가(2123호), ⑦고령농가(156호), ⑧가든형식당(425개소)이다.
 - 이들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집중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철새가 많은 곳, 축산차량 출입이 잦은 곳, 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,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 등이다.

-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지자체와 함께 8대 취약 대상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방역점검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며, 현장에서 발견된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.
- 농식품부는 과거 국내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, 축산차량이 주요 전파요인으로 지적된 만큼 가금농가에서는 위험시기에 축산차량의 농장 내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위험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.
- 부득이하게 출입 시에도 농장 전용차량을 이용하거나, 농장 방문 시 마다 3단계 소독 실시*, 농가 진출입로에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(5~10m 길이)하는 등 이전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.
 - * 축산시설 소독→거점소독시설 소독→농장 입구 소독
- 아울러, 현재 정보통신기술(ICT)을 활용하여 축산차량이 철새 도래지에 접근하면 차량에 설치된 차량무선인식장치를 통해 진입금지 음성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,
 - * 고위험(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, 가금 밀집지역 등) 철새도래지 20개소에 대하여 우선 실시 중이며, 다른 철새도래지에도 확대 실시 계획
- 축산관계자와 축산차량은 가금농가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새도래지 진입을 금지하는 등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